



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

콘텐츠 유형: 스팟르포르타주

사진 및 글: 이상훈

# Street design

제2편

유럽 공공디자인 (독일)

1편의 일본공공디자인에 이어 유럽의 공공디자인을 살펴본다. 일본과 유럽과의 공공디자인을 비교하여 특성을 알아본다.



a. RE Trash bin?



<사진1>



<사진2>



<사진3>



<사진4>

‘사진1,2,3,4’는 거리 쓰레기통의 모습이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닐 혹은 플라스틱을 이용한 쓰레기통이라는 점이다. 일반가정에서 휴지를 쉽게 버리기 위하여 휴지통 안에 비닐을 넣어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. 디자인적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, 형태가 심플하며 사용자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려하였으며, 쓰레기가 넘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입구가 작아 떨어지는 일은 쉽게 찾아 보기 힘들다. 쓰레기통 주위가 깨끗하면, 그 거리 역시 깨끗해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?

b. Minimal bench?



<사진5>



<사진6>



<사진7>

위의 사진들은 벤치사진이다. 형태적, 심미적인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나요?.. 앞서 말한 쓰레기통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. 심플하면서 간결한 그 기능만을 위한 특화된 조형과 디자인이다. <사진6>의 벤치는 나무살을 이용하여 최대한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, 나무소재 이외의 프레임을 보여주지 않는 미니멀한 벤치이다. 다른 벤치도 기능에 충실하면서 최대한의 절제미가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.



c. Red color?



<사진8>



<사진9>



<사진10>

Red color? 소화기와 같이 소화전에 트루 레드컬러를 사용을 하였다. 심플한 요소와 함께 직관적인 컬러를 사용한다.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,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. 레드컬러를 사용한 간결한 커버를 이용하여 예전의 소화전을 가렸다. 실용적인 공공디자인의 예로 볼 수 있으며, 지켜야 할 부분과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히 사용을 하였다.

d. Bicycle culture?



<사진11>



<사진12>

일본 및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은 자전거문화가 아닐까 싶다.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,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전거에 대한 공공디자인 시설 또한 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자전거 거치대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쉽게 알 수 있다.



e. Color match.



<사진13>



<사진14>



<사진15>

공공디자인의 특징은 거리의 조화이다. 시설물이 튀거나 복잡하면 안 된다.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의 시설물은 거리에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. 다른 디자인에 비해 공공디자인은 컬러에 대하여 민감할 수 밖에 없다. 잘못된 컬러 선택은 거리 혹은 다른 시설물과의 이질적인 모습은 거리를 해치는 것과 다름 없다.

\* 일본의 공공디자인은 섬세한 부분과 자연과의 조화, 그리고 재치와 재미가 더해진 디자인이었다면, 유럽의 공공디자인은 간결하지만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린 미니멀디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. 거리에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조화롭게 묻어나는 조용한 거리의 공공디자인이다. 각 나라별로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철학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매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공공디자인이란 몇 년 사이에 쉽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, 수년의 세월이 흘러 수정과 수정을 거쳐 그 나라의 특색이 드러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.